

# 21세기 지도이념은 '공생'

미즈다니 고요소  
일본정토종 중무총장

## 정각원·한마음선원서 강연



한마음선원에서 강연중인 미즈다니 스님

미즈다니 스님은 또 "일본 사회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자연과의 공생'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사상으로 '공생'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 줄 아무도 몰랐다"고 지적한 후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를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한다면 곧 '공생'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정토종 스님인 미즈다니 스님은 일본 불교 대 총장을 3번이나 연임하면서 대학의 면모를 혁신한 교육자인 동시에 한·중·일 불교교류대회를 이끌어 낸 산과 역할을 한 인물.

"21세기 인류의 지도 이념은 바로 '공생(共生)'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방한해 10월 12~13일 경기도 인양 한마음선원 본원과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에서 '공생(共生)'을 주제로 잇달아 특별 강연을 한 일본 정토종 미즈다니 고요소(水谷幸正, 76) 중무총장(우리나라의 총무원장에 해당)은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불교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공생'이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 "남 살리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 인연생기·상의상관이 현대의미 共生"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벌(천재)이 아니고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인재"라고 말문을 연 스님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곧 남을 살리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일본에서 얘기되고 있는 '공생'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에서는 '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생'이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살게 되어져서 산다', 즉 '자기 혼자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란 뜻이고, 그것은 곧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다"고 말했다.

"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인연생기(因緣生起)와 상의상관(相依相關)이다. 나 혼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내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의상관이고, 전생으로부터의 인과 연이 합쳐져서 오늘의 내 존재, 혹은 타인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연생기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의미에서는 공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난 2000년에도 한마음선원을 방문해 선원장 대행 스님과 대담을 나누기도 했던 미즈다니 스님은 12일에도 강연 전 대행 스님과 잠시 시간을 가졌다. 미즈다니 스님은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공생'뿐 아니라 공심, 공용, 공체, 공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이날 강연에서 밝히기도 했다.

관현경 기자 jimny@buddhapia.com



부처님이 도리전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려 내려온 인도 상카시아에서 10월 11일 기념법회가 개최되고 있다.

부처님이 도리전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려 내려온 날인 10월 11일 인도 상카시아 지역에서 기념법회가 개최됐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자국이 있는 상카시아 지역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탑이 세워지고 사원이 건립됐다. 그러나 인도에서 7

## "인 상카시아 聖地 평화적 복원을"

### 법륜스님, '부처님설법 하신날' 기념식서

백 년 동안 불교가 쇠퇴하자 힌두교가 그 탑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1백 년 전부터 불교성지로 사원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됐다. 최근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중요한 수 일원인 사원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힌두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강조했다. 한편 부처님 발자국이 있는 탑이 최근 60년만에 발생한 큰 홍수로 군데군데 무너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복구가 시급함이 지적됐다. 이에 앞서 9일 법륜 스님은 우타프 라데시주 강가푸르 마을을 방문해 법당 기공식에 참석했다. 또 같은 날 달래일푸르 점안식과 법당 개원식에도 참석해 200여명에게 계를 내렸다. 이 자리에서 법륜 스님은 "석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 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지기를 기원했다.

남동우 기자

## 불교여성개발원 세미나

'기복불교란 뭐냐'는다면 여성 재가불자의 수행생활도 남성재가불자 못지않다'

10월 17일 걸스카우트연맹 회관 10층에서 열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인자) 제2회 정기세미나는 그동안 논의에 있었던 여성재가불자들의 수행생활과 정체성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여성의 깨달음을 향한 가능성'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초기불교시대 여성재가불자의 수행생활" 발표자로 나선 백경임(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는 "부처님 시대 인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 중간정도로 인식됐지만 <중일야합> '청신녀품'에서 뛰어난 우바

## "초기불교시대엔 남녀불자 동등 대우"

### 아라한 21명중 우바새11, 우바이10명"

이 30명을 자세히 거론하고 있듯, 당시 불교 교단의 여성불자는 남성불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았다"며 "그것은 그들의 수행내용과 목표가 같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조준호(동국대 강사) 씨는 "초기불교시대 여성재가불자의 수행생활" 발표자로 나선 백경임(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는 "부처님 시대 인도 여성은 남성과 동등 중간정도로 인식됐지만 <중일야합> '청신녀품'에서 뛰어난 우바

상은 상상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조는 '현대여성불자의 수행과 삶' 주제발표에서도 이어졌다. 발표자 김경희(이화여대 한국어 성언어연구소 연구교수) 씨는 여성불자 8인 면접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 여성불자들은 전통적 참선 수행방법을 택하지 않더라도 기도와 108배 등의 '수련 생활화'로 심신안정의 수행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보시를 일상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신재 기자

## 서운스님 열반 8주기

### 전등사, 추모법회 봉행

강화도 전등사주지 계승는 10월 17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전 총회회장 청하 스님, 총회위원장 정운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목당 서운(1903~1995)대종사 열반 8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어 강설당에서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원로위원을 역임한 서운 스님은 60년 62년 83년등 세 차례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1971년 최초의 총무원장 규정집인 <처우규정>을 발간하는등 종단발전에 노력했다. 김원우 기자

## 좁마족 탄압 즉각 중단하라

### 8개 불교단체, 방글라 대사에 항의 서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아침을 여는 집 등 8개 단체가 지난 8월 26~27일 방글라데시 카키라차리 지역 마할차리에서 발생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불자민족인 좁마인 탄압 사건을 엄중 항의하는 서한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10월 15일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종,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좁마인을 폭행하고 가족과 사찰을 방화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스소수 민족 좁마

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 △좁마 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좁마인의 지역인 CHT(차타공 산악지대)에서 방글라데시 군대와 병갈리 이주민 철수 등을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할차리 탄압 사건은 지난 26, 27일 병갈리 이주민과 방글라데시 군인들에 의해 좁마인 1명 피살되고 좁마여성 7명 강간, 가족 348명과 사찰 4곳 방화, 불상 파괴 등이 자행된 사건이다.

남동우 기자

## 북한산 살리기 생명법회

### 27일, 먹이통달기등 행사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북한산 살리기 생명법회'가 개최된다. 10월 27일 오후 2시 북한산 회룡

계곡에서 열리는 법회는 의정부지역 유아들이 참가한다. 또 발원문, 이기십 선생님의 새 먹이통 달아주기 시현,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산 살리기 저변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고양, 평촌, 군포, 신촌, 성남, 분당, 수지, 구산,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선 나눔 콜택시**  
**1588-5532**

**목탁소리**  
한상희 (취재2부 기자)

**천도재? 산사음악회?**

국민가수로 유명한 조용필 씨가 출연했던 10월 14일 울산시 울주군 용암사의 산사음악회에서 입장료 환불 소동이 일어났다.

조용필 씨의 측근은 "사찰 측에서 구경시식을 하는데 초창기부터 부인(고) 안현련 씨의 천도재를 지낸 인연도 있어 수락했다"며 참석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막상 자리에서 가보니 '조용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공연이 마련돼 있어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미 모인 천

여 명의 관람객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천구어' 한국만을 부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미니 콘서트 규모의 공연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항의가 빚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용암사 측은 그와 다른 입장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 신도는 "가수를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노래를 해달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또 공연 입장료로 받았다고 알려진 연봉비 3만원에 대해서는 "이 행사를 통해 태몽으로 피

해를 입은 사찰인구를 보 수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재민들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었지만 환불 소동으로 인해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신한 기획과 치밀한 준비 없는 산사음악회는 포교마당도, 문화마당도 될 수 없다. 산사음악회가 불교계만의 집안행사로서 그치지 않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열린 포교의 장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용암사'가 가르치고 있다.

## 성불화 롬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과학적인 개발기간 2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었을까? 성불화 롬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제작사(주)롬비니 신발공학센터에서 2년의 연구기간과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만든 성불화 롬비니가 출시 1년만에 국내시장을 석권하며 젊은층은 물론 중년층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어떤 K씨는 광고를 믿지도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고통도 못하고 고생하는것이 안타까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라도 사드리려고 하던 중 성불화롬비니신발이란 소문기사를 보고 속는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1mm이상 가벼게 걸음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또한 서울 서초구에 사는 70여살은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선이 죽던가 어떻게 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시용**

천연방수 가죽 뉴백은 천연가죽중 최고급가죽으로 대단히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 미국, 일본, 유럽에서 최고급신발에만 사용되는 가죽으로 상류층에서 최고급신발로 통한다. 눈 비올때에 미끄럼방지용 워터 밀착용 초점형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온냉한 미끄럼방지 기능과 접지력과 충격력을 강화했으며 신전대사를 촉진하고 하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발에서 강력한 흡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사하게 만든 것이 돋보인다.

성불화롬비니는 남녀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조했으며 전후로 사이즈와 주수를 알려주며 전국 어디나 우체국택배로 정성껏 보내고 있다. 가격\$8,000원

문의전화 : (02)722-2890  
전화: 360-12-04646 최능우

## 스타필드 국내 첫 시판

살이 빠져요

한국특허 제 0239854호  
미국특허 제 5974699호  
일본특허 제 3027143호

balance your body

1시간 걸거나 뛰어도  
3시간 운동효과  
월2kg 감량 OK!



**평지걸어도 통산하는 효과**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에만 수출하던 신발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스타필드 운동화가 국내시판에 들어가 시판 3개월도 안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비만의료신발로** 우리는 27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은 다이어트 조깅화, 일본에서는 다이어트신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이다. 한국체육대학교 7유종만 교수는 스타필드 신발은 뒤축이 15°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므로 평지를 걸어도 산에 등산하는 것과 같이 운동량이 배가 효과가 있으며 짧은 착용기간에도 운동 지구백 트러닝과 고트레닝의 탁월한 운동효과를 나타내 운동할 시간이 없는분은 짧은 입원인과 운동선수들에게도 필요한 제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트레칭 효과 각섬미 실러**

스타필드는 다이어트 보행자제로 알려진 방충실-방압급 보행이 가능하도록 뒤축을 15° 정도 높게 설계해 몸의 관절과 허리를 부드럽게 주는 효과가 있으며 신는 순간부터 운동 효과를 배가시켜 다이어트는 물론, 각섬미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또, 발열을 방지 때에는 발바닥의 온도를 지압해 장시간 보행에도 피곤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과 뒤통에 실러

는 재질을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관되게 적용 했을때 보다 35%까지 감소시켜 준다.

**운동역학적 설계로 세계시장 석권**

스타필드를 신어본 이들은 한결같이 스타필드의 운동효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필드는 운동부족과 '영양과잉 섭취' 등으로 비만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뒤축15° 없어 3cm 커보여**

또한 뒤축이 3cm가 떠있어 키가 작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3cm 키가 커보여 키작은 고민도 해소된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제조회사인 삼덕물상(주)에서 제작된 스타필드는 국내판매는 (주)힐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225mm~300mm까지 제작되어 전향로 사이즈의 주수를 알려주면 전국 어디나 우체국택배로 보내고 있다. 가격135,000원

문의전화 : (02)2271-1441  
전화: 360-12-04646 최능우